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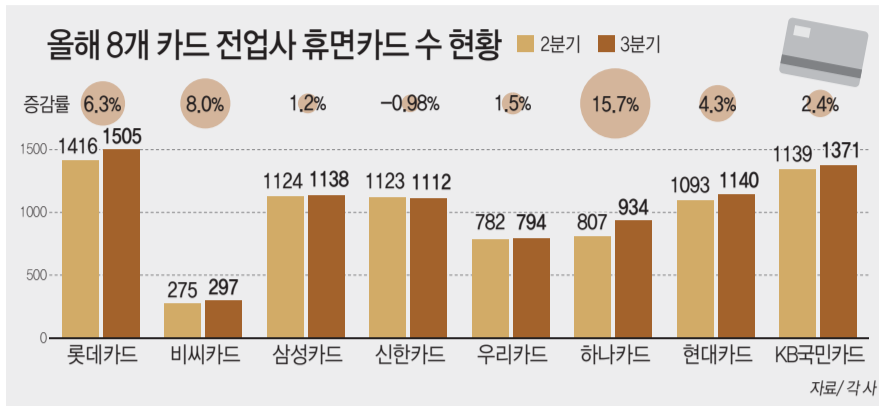
휴면카드 800만장... '적금연계 마케팅' 잠자는 고객 깨워라

3분기 신한·삼성 등 8개 카드사
2년 전 648만장 대비 29% 증가

하나-전분기比 16%, 비씨-8% ↑
“마케팅 아닌 실질 혜택이 중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서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 수가 800만장을 넘어섰다. 휴면카드 수가 10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카드 발급에 치중한 마케팅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를 선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휴면카드란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발급 초창기에 마케팅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휴면카드 증가세가 달갑지만은 않다. 각종 마케팅



팅을 통해 카드 발급까지는 이어졌지만 고객이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몰비용만 고스란히 남게 되는 셈이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비씨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전업사의 올 3분기 휴면카드 수는 829만1000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47만8000장을 기록한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99% 증가한 수치다.

올 3분기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전분기보다 휴면카드 수가 증가했다. 하나카드는 올 3분기 전분기보다 휴면카드가 15.74%(12만7000장) 증가하면서 카드사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

다. 뒤이어 비씨카드 8.00%(2만2000장), 롯데카드 6.29%(8만9000장), 현대카드 4.30%(4만7000장) 순으로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카드사 중 유일하게 같은 기간 0.98%(1만1000장) 가량 낮추면서, 전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휴면카드 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전업사들의 휴면카드 수는 지난 분기에 이어 또 한 번 상승을 기록하면서 10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휴면카드는 지난 2017년까지는 등락을 반복했음에도 600만장대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2018년 1분기(597만4000장)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후 2019년 2분기(746만2000장)에 처음으로 700만장을 넘어섰으며, 올 3분기 들어서 800만장대에 진입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한 고

객이 카드를 여러 장 발급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카드만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히 고객 수 증가를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혜택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에서도 이같은 휴면카드 증가세를 막고 실제 사용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신규고객이 휴면고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마케팅 방안을 펼치고 있다”며 “적금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선 적게는 6개월간 일정한 금액 이상의 실적을 쌓아야 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을 통해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지난 1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그룹-한국남부발전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세번째), 권광석 우리은행장(왼쪽 첫번째), 송기인 한국남부발전 처장(네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IBK기업은행 ‘i-ONE 소상공인’ 출시

개인·사업용 계좌 업무 일괄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 전용 생활 금융플랫폼 ‘i-ONE 소상공인’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i-ONE 소상공인’에서는 기업은행의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모두 조회·이체할 수 있고, 전 은행의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OTP 없이 6자리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계좌 조회와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간편뱅킹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또 비대면 대출 실행과 기간연장, 외화송금·환전도 가능하고 예금·펀드·카드 등의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뱅킹 업무 외에 세무, 노무,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동영상 교육자료,

블로그 형식의 글 등을 통한 경영노하우와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정보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정보도 제공한다.

세무 관련 업무를 돕기 위해 세무 증빙 자료·은행 거래 데이터 자동 수집, 세무컨설팅 등의 서비스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자동계산, 급여관리 등의 경영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같은 업종의 소상공인이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용 고객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금융-한국남부발전 ‘그린뉴딜’ MOU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남부발전과 ‘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발굴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송기인 한국남부발전 처장이 참석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협력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그동안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사업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넓혀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그린뉴딜 사업의 수행을 위한 포괄적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린뉴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신재생 에너지사업 전 분야에서 공공성 기반 국민 참여 사업모델을 발굴해 나선다. /이영석기자

‘대부업 청산’ 저축은행, 새 먹거리 개척

OK금융, P2P 금융업 진출 준비
웰컴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신청

오는 2024년까지 대부사업을 청산해야 하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각각 개인 간 거래(P2P),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행보를 개척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을 청산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때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것.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모기업인 OK금융그룹이 대부업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현재 그룹의 계열사인 OK인베스트먼트를 통해 P2P금융업 진출을 적극 준비중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OK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업체 등록 및

온라인투자연계법 설립 추진단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그룹의 P2P금융 진출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개정안이 탄력을 받으면서 대부업을 빠르게 철수해야 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 현재 정치권, 금융권에서 서민층 저신용자를 위해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대부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O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대부업 청산을 금융당국과 약속하고 이후 원캐시, 미즈사랑 등 대부업 계열사를 접었다. 아프리카이엔셀대부가 소유한 러시앤캐시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OK금융그룹의 P2P금융 진출이 대부업 대신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P2P금융업을 실행하고 있는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는 아

프로파이낸셜대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는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P2P금융업 등록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사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웰컴저축은행 또한 같은 시기에 대부업 청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미래 수익성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신청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디지털 본부를 개편하는 등의 변화를 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끼리 고객의 금융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고객의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유진 기자 ujn6326@

신한은행-한국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금융 혁신 맞손

익스페이스 구축에 기술력 접목

신한은행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13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신한은행의 금융 혁신 연구개발(R&D)공간인 ‘익스페이스(Espace)’ 구축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풍부한 글로벌 경험과 디지털 기술력을 접목시키기로 했다.

익스페이스는 신한은행의 디지털 부서와 핀테크, 스타트업 및 혁신 대기업 등 외부 협력업체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일하며 금융 서비스를 개발 및 검증하는 공간이다.

양사는 앞으로 ▲모던 워크스페이스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진행된 ‘신한은행-마이크로소프트 금융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신한은행 디지털그룹 이명구 부행장(왼쪽)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는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및 인공지능(AI) 환경 구축 ▲혁신 방법론 프로그램 이식 ▲플랫폼 인프라 확충 협력을 통해 신한은행의 성공적인 DT(Digital Transformation)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익스페이스 내 모던 워크스페이스 환경을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

까지 항시 연결된 협업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플랫폼인 ‘팀즈(Teams)’를 표준 커뮤니케이션 툴로 사용해 높은 보안성과 함께 구성원들간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안삼미 기자 smahn1@